

생명보험사 절반, 올해 수입보다 지출 많았다

23개 생보사 중 11개사 보험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

'허탕' 친 보험사, 금리부담 커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

우리나라 생명보험사 23개 중 11개는 올해 상반기(1~6월) 보험 영업을 하며 번 돈 보다 쓴 돈이 많은 '허탕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 전체의 보험영업 현금흐름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저금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장성 보험을 위주로 판매해 수입보험료 자체가 줄어든 데다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영향으로 지급보험금이 커진 영향이다.

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와 시사점'을 보면 생보사 보험영업 현금흐름은 2016년 이후 빠르게 줄어 올해 상반기 -427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수치다. 보험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수입보험료)과 나간 돈(지급보험금+사업비)을 알 수 있다.

보험영업현금흐름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2016년 119조8000억원에서 2017년 114조 원(전년동기대비 -4.9%), 2018년 110조8000억원(-2.7%), 올해 상반기 52조2000억원(-1.0%)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반면 지급보험금은 같은 기간 71조7000억원에서 79조4000억원(10.8%), 86조1000억원(8.4%), 44조7000억원(상반기 5.9%)로 늘었다. 사업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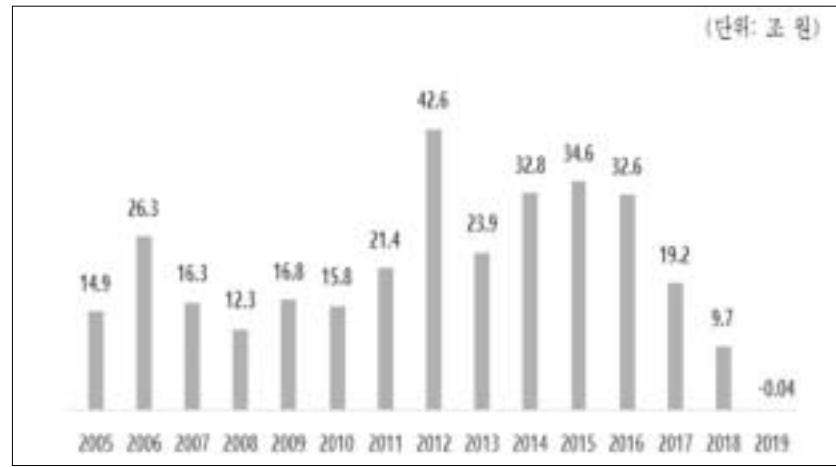
회사별로 보면 23개 생보사 중 올해 상반기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11개였다.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2개사, 3개사, 5개사였던 것에 비해 최소 두 배 넘게 늘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가 줄어든 것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

축성상품 판매를 줄이고 보장성상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와 더불어 2022년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의 교육 자책이다.

IFRS17이 도입되면 회계장부상 보험부채가 시가로 평가된다. 저금리가 반영된 현재 가치금액으로 평가돼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부채)이 커진다. 저축성상품은 만기 때 돌려줘야 할 보험금 규모가 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저축성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으면 이차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어 금리부담도 크다. 보험사가 수입보험료가 줄더라도 보장성상품을 파는 이유다.

특히 이들 생보사는 금리리스크 부담이 높은 공종점이 있었다. 생보사는 6월 말 책임준비금 대비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금 비율



이 10% 미만이었다. LAT 잉여금은 현재 책임준비금에서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뺀 후 남은 차액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앞서 장기간에 걸친 보험부채의 현재 가치금액과 회계장부상 보험부채의 차이를 매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LAT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현재 책임준비금이 100조원이고,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90조원이면 10조원의 잉여금이 남는다. 이때 책임준비금 대비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금 비율은 10%다.

책임준비금 대비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금리하락 때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잉여금이 적으니 금리하락에 따른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더욱 부담스럽다. 23개 생보사 중 14개사가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조영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생보사는 유동성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는 회사는 당기순이익 관리를 위해 고금리 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패딩의 귀환'

판매량 13% 늘어

직장인 김민수씨(가명·38·강남구 도곡동)는 최근 집 밖을 나서자마자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한파'에 소스라쳤기 때문이다. 캐주얼 정장에 '요즘 유행'이라는 솜패딩을 걸쳐입은 그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재작년 구입한 N사 '통패딩'을 옷장에서 꺼내 무장 한 뒤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김씨는 '멋도 좋고 유행도 좋지만 솜패딩을 입다가 금방이라도 몸살 날 것 같았다'며 "조만간 '통패딩' 하나 더 정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7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1월 29일~12월 5일 통패딩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이 이미 지났다"고 평가됐던 통패딩이 이번 겨울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예년보다 더 빨리, 강하게 찾아온 추위에 소비자들은 김치처럼 통패딩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이번 달 들어 연일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따뜻했던 지난해 겨울 '솜패딩 선호 흐름'이 뚜렷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이번 겨울 나타나고 있다"며 "작년 솜패딩의 유행으로 '쓰라린 경험'을 학습했던 업체들은 이번 시즌 통패딩 물량을 재빨리 확보해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자 워킹맘 증가...2명 중 1명 2백만↑

올해 월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워킹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가운데 임금 수준이 높은 상용근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절반에 가까운 워킹맘은 여전히 월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인구가 크게 감소 하면서 전체 워킹맘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임금근로자 229만명 중 55.9%인 128만명은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200만원미만을 받는 워킹맘 비중이 줄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제 888 회차 당첨결과 (2019년 12월 07일 추첨)

3 7 12 31 34 38 + 32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8	2,370,359,204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9	53,567,44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453	1,288,414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23,025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990,715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연장됨)

농협은행 예금금리 0.1~0.3%p 인하...은행권 줄줄이 내릴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리 첫 인하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주요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이 처음으로 예금금리를 인하했다. 대출금리가 올라 예금금리 인하를 두고 '눈치 싸움'을 이어가던 다른 은행들도 인하 행렬에 줄줄이 동참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6일 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 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를 0.1~0.3%p 내린다고 밝혔다. 1

년 만기 기준 일반정기예금 금리는 기존 1.25%에서 1.00%로 0.25%p 인하됐다. 적금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1.55%에서 1.30%로 내려간다.

만기 3년 이상 적금의 경우 0.30%p가 내려가 인하 폭이 컸다. 이에 따라 3년 만기 정기적금·자유로우대적금 금리는 1.35% 수준이다. 주택청약예금 금리도 1년 만기 기준 1.80%에서 1.65%로 0.15%p 하향 조정된다.

농협은행의 금리 인하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약 두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길어도 2주간 시간의 차이를 두고 예금금리를 인하한 것에 비해 늦어진 것이다.

이는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시대가 지난 10월말부터 열려 고객 이탈을 최대한 막아야 했던 점과, 내년부터 가계대출 확대에 제약이 따르는 신(新) 예대율 규제가 시작돼 수신액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한때 장기 시장금리가 상승해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예금금리를 내릴 경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어 이른바 '총대 멜' 은행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뉴스1

광주, 대한민국의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